

청년소셜벤처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2014. 11. 1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행사 개요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오후 4:40~6:30 (청년세션 전체 2:30~6:30)
- 장소 :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
- 주제 : “청년소셜벤처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 요약 : 최근 몇 년 간 서울을 중심으로 수많은 청년소셜벤처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소셜임팩트 투자, 청년 협동조합, 대학교 사회적경제 동아리 등 여러 경로로 소셜벤처의 길에 들어선다. 과연 한국의 청년소셜벤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이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주체들은 어떤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 청년소셜벤처가 지속가능한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청년소셜벤처 당사자, 중간지원조직,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 프로그램 (안) - 섭외 중

| 구분 | 시각 | 분 | 프로그램 | 발표/진행자 |
|----------|-------------|----|--|---|
| 여는 순서 | 16:40-16:45 | 05 | 여는 말, 참가자 소개 | 한선경 (씨닷 공동대표) |
| 1부 발제 | 16:45-17:05 | 20 | 발표 ① 언리미티드 중국(NPI) 해외 각국 청년소셜벤처 생태계 및 지원현황 | 웨이나 왕 (언리미티드 중국/ NPI 부회장) |
| 2부 토론 | 17:25-18:05 | 40 | 사례 ① Social Venture Partners International 사례 ② 서울시사회적기업협의회 청년분과 사례 ③ 민달팽이 유니온 사례 ④ 유자살롱 사례발표 각 10분, 총 40분 | 로나 프라이어 부국장 이학중 이사 권지웅 대표 이충한 공동대표 |
| | 18:05-18:25 | 40 | 라운드테이블 | 한선경 |
| 마무리 | 18:25-18:30 | 05 | 공지, 폐회 | 한선경 |

□ 프로그램 세부 내용

- 사회자: 한선경(씨앗 공동대표)

| 발 표 ① | |
|------------|--|
| 주제명 | 해외 각국의 청년소셜벤처 생태계 및 지원현황 |
| 발표자 | 웨이나 왕(Weina Wang) 언리미티드 중국(NPI) 부회장 |
| 발표내용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리미티드 본사 및 지사 소재지 각국의 청년소셜벤처 지원정책과 지원방식 - 지속적인 도전과 실험이 가능한 청년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경험과 이야기 <p>NPI는 중국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10년 가까이 해온 단체이기 때문에, 우선 자신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NPI는 언리미티드의 중국 파트너이기도 합니다(GSEN-Global Social Entrepreneur Network의 일원) 따라서 언리미티드와 교류하고 있는 내용들, 해외사례를 함께 다룰 것입니다.</p> |
| 토 론 | |
| 주제명 | 청년 그리고 소셜벤처 |
| 사례발표 | <p>로나 로웨나 프라이어(Rona Rowena Pryor) SVPs 인터내셔널 부국장 로나 프라이어 역시 소셜벤처파트너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번에는 시애틀에 자리한 인터내셔널 사무국에서 방문하기 때문에 미국 등 다양한 해외 소셜벤처 지원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p> |
| | <p>이학중 이사(서울시사회적기업협의회 청년분과장) 다년 간 소셜벤처를 해온 입장에서, 한국의 소셜벤처가 생겨나고 성장해온 경과를 경험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또한 소셜벤처 네트워킹의 당위성,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 중입니다.</p> |
| | <p>권지웅 위원장(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의 자립과 자생을 위해 특히 주거, 금융 등 분야의 청년 연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모인 민달팽이 유니온 사례와 최근 서울시 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소개합니다.</p> |
| | <p>이충한 공동대표(유자살롱) 청년세션 1부와 2부의 가교 역할입니다. 청년세션 전체는 청년의 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풀어가는 과정,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지점과 해결방식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서로의 닮은점과 다른점을 다루면서 사회적경제와 청년이 어떤 관계를 맺고 갈 것인가, 소셜벤처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등 논의할 예정입니다.</p> |
| 토론내용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청년소셜벤처가 말하는 청년소셜벤처 생태계 - 청년이 본 소셜벤처 - 소셜벤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소셜벤처파트너스 활동 공유 |

[참고 1] 해외연사 및 소속기관 자료

◎ 언리미티드 중국/비영리기구 인큐베이터(Unlimited China/NPI)

NPI는 2013년부터 언리미티드의 중국 파트너. GSEF2014에는 언리미티드 자격으로 초청되어 이렇게 복잡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NPI (비영리기구 인큐베이터)는 중국의 제3의 신생 부문을 지원하는 여러 중재 기관 클러스터이다. 2006년 1월부터 사회 혁신 촉진과 사회적 기업 양성 활동을 해왔다. 현재, NPI에는 중국 13개 도시에서 약 200명의 상근직이 근무하며,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최대 규모 비정부기구로 자리잡았다. 비정부기구의 자선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기업, 재단으로부터 현재까지 3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았다. ‘비영리기구 인큐베이터,’ ‘공동체 서비스 플랫폼,’ 벤처기부기금과 경쟁,’ ‘상하이사회혁신공원,’ ‘상하이 사회혁신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수행했고, 2009년 ‘상하이 유나이티드 재단’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비정부기구와 사회적기업을 200개 이상 육성했고, 1,000개 이상이 NPI의 혜택을 받았다.

● 웨이나 왕(Weina Wang)

웨이나 왕은 NPI 부회장이다. 중국에서 수학사 학위, 시드니 공과대학에서 의사소통관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언론과 마케팅 홍보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았고, WWF와 CEFA, Shell, CCTV, Westpac Bank에서 의사소통 및 프로젝트 관리 주요직을 맡았다. 2011년 NPI 북경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 소셜벤처파트너스 인터내셔널(Social Venture Partners International)

소셜벤처파트너스 인터내셔널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단체 간에 돈독한 관계를 맺어준다. 38개 도시 3000명 이상의 기부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각 개인이 기부를 늘리고 비영리단체를 후원하며 공동체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다. SVP 인터내셔널의 파트너들은 기금을 모아, 사회변화를 이끌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된 비영리 피투자자에게 수년간 무제한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및 직업 전문 지식도 제공한다. 파트너들에게 전략적 자선활동에 대해 알리고 파트너가 가진 시간과 재능, 금융 투자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SVP는 단순히 자금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연결하고 한데 모아 자선활동을 통해 사회에 최대한 많은 영향을 주도록 도우며 비영리단체를 후원하고 육성해 공동체의 주요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게 돕고 있다.

● 로나 로웨나 프라이어(Rona Rowena Pryor)

로나 로웨나 프라이어는 소셜벤처파트너스 인터내셔널(SVP International)의 부국장으로, 2003년부터 이곳에서 일했다. 주로 SVP 인터내셔널의 국제회의와 모임을 기획하고, 실천공동체를 촉진하는 일을 한다. SVPN은 서울을 포함해 7개국 38개 도시에서 운영되며, 38개 도시 3000명 이상의 기부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각 개인이 기부를 늘리고 비영리단체를 후원하며 공동체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퍼시픽 루터란대학교에서 영어학과 연극학을 공부하며 잠깐 동안 인도주의적 기관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 때 발칸지역 전쟁의 직접적인 여파로 코소보에 가보는 특권을 누렸다. 인생을 바꾼 경험 때문에 사회적 분야에서 일하겠다는 굳게 다짐하게 되었고 여행광이 되었다. 콘서트 기획자이자 잡지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다.

[참고 2] 청년세션1 요약

-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 오후 2:30~4:20
- 장소 :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
- 주제 : “청년의 주장: 한일 청년의 자립을 생각하다”
- 요약 : 자살율 세계1위를 계속 기록하는 한국의 청년들. 그들의 허무함과 고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혼자 방에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일본에서 26년의 역사를 가진 지원단체 K2 international의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배우고 또 한국의 청년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우리가 차세대 청년들을 위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청년서울선언’으로 발표를 하는 세션이다.
- 참여기관 : K2 International Japan(주관), 유자살롱, 참새의상실, 마포논대학, 심리상담소, 함께일하는재단, 모두들
- 프로그램 기획안

| | |
|---|--|
| GSEF2014 청년세션. 청년문제, 사회적경제로 풀어내기(가칭) (14:30~18:30) | |
| Part1. 한국과 일본, 사회적 경제 안에서 청년의 자립을 고민하다(14:30 - 16:20) | |
| 주최 | 한일청년포럼, 함께일하는재단 |
| 초청기관 | K2인터내셔널 일본, 예비사회적기업 (주)연금술사 |
| 좌장 | 김창주 (함께일하는재단 전략기획팀장) |
| 주제 | 발제1 : “포괄적 청년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이와모토 마미 (K2인터내셔널 그룹, NPO법인 Human Fellowship 대표이사) 발제2 : “한국 닛트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과 방법론” 박진숙 ((주)연금술사 대표이사) |
| 토론 |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협동조합 살림, 한일청년포럼 기획단) |
| Part2. 청년소셜벤처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16:40~18:30) | |